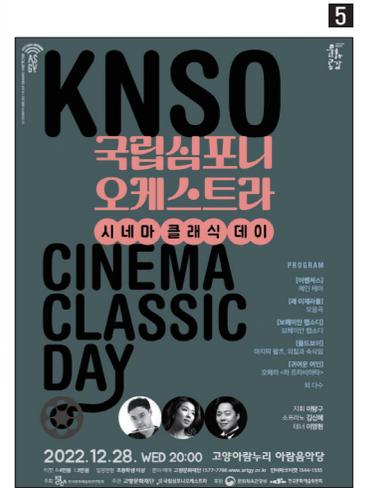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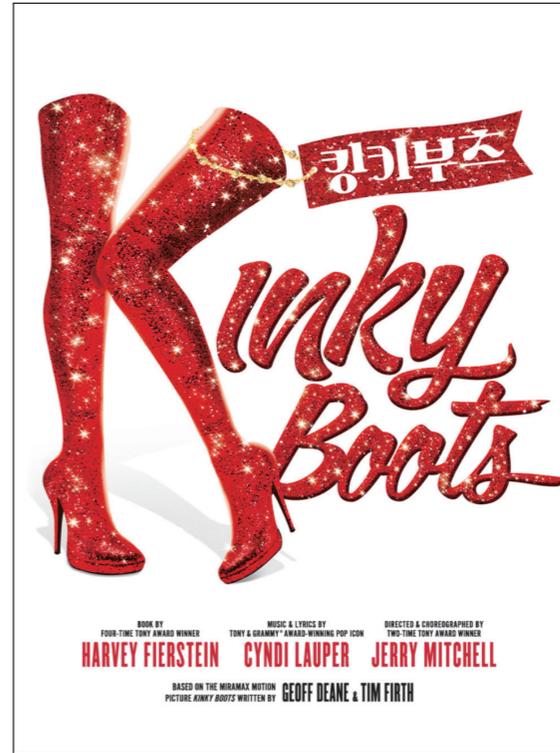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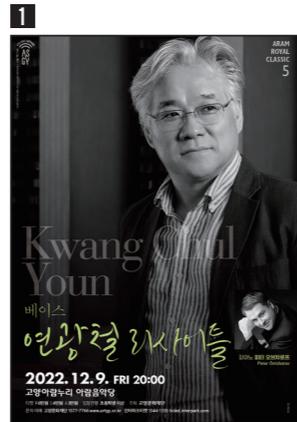


마음까지 따뜻한 연말을 위한 문화가 있는 고양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해를 뜻깊게 보내는 방법 하나, 마음을 따스하게 토닥여주는 공연을 즐기는 건 어떨까.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정보를 소개한다.



홈페이지 www.artgy.or.kr
문의 ☎ 1577-7766



1 클래식 <베이스 연광철 리사이틀>
고양국제음악제 이후 10년 만에 고양 아람누리 찾아온 이번 무대는 독일 예술가곡을 대표하는 슈베르트, 슈만, 슈트라우스의 작품과 바그너와 로시니의 오페라 아리아, 엄선한 우리 가곡까지 다양한 빛깔의 리사이틀을 선보일 예정이다. 같이 무대를 꾸며나갈 피아노 ‘피터 오브차로프’는 유럽, 아시아 등 유수의 콘서트홀에서 솔리스트이자 세계 주요 도시에서 오케스트라 협연자로 연주하였다.

일시 12. 9.(금) 20: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마두동)
티켓 R석 : 60,000원, S석 40,000원
A석 : 30,000원

2 콘서트 <추다혜차지스 콘서트>
‘추다혜차지스’는 소리꾼 추다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이키델릭 샤머닉 힙크 밴드이다. 사이키델릭 샤머닉 힙크는 직접 만들어낸 장르로 평안도, 제주도, 황해도 곳에서 쓰이는 무가에 힙크 사운드와 힙한 요소를 가미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색을 보여주고 있다. ‘뭣’을 뜻하는 ‘차지’는 음악을 만든 추다혜차지스와 듣는 이들의 뭣으로 ‘모두 가져가’ 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일시 12. 9.(금) ~ 10.(토) 금 20:00, 토 17: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마두동)
티켓 전석 35,000원

3 2022 아람누리 오페라 콘서트 <모차르트 마술피리-용기와 희망>
‘마술피리’는 1791년 9월 30일 초연된 작품으로 모차르트의 생애 마지막 오페라이기도 하다. 하이라이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아리아 중 ‘지옥의 분노, 마음에 불타고’를 밤의 여왕이 부르는 부분이다. 타미노와 파미나 두 사람의 힘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사랑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용기와 희망의 내용을 오페라를 통하여 보여줄 예정이다.

일시 12. 17.(토) ~ 18.(일) 토 16:00, 일 16: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마두동)
티켓 1층석 40,000원
2층석 30,000원

4 뮤지컬 <킹키부츠>
폐업 위기에 처한 구두 공장을 물려받게 된 ‘찰리’는 유쾌한 남자 ‘롤라’를 만나 도전을 시작한다. 남자가 신는 80cm 길이의 부츠인 ‘킹키부츠’를 함께 만들기 위한 두 사람은 밀라노 패션쇼에서 색시한 ‘킹키부츠 라인’을 선보이려 하지만, 협업은 어렵지만 하다. 결국 ‘찰리’는 밀라노 런웨이에 홀로 서게 된다. 과연 두 남자가 함께 완성할 ‘킹키부츠’는 성공할 수 있을지 스토리의 궁금증을 만들어내며 화려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12. 17.(토) ~ 18.(일) 14:00, 19: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마두동)
티켓 VIP석 150,000원 / R석 130,000원
S석 90,000원 / A석 70,000원

5 클래식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시네마 클래식 데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어벤져스>, <올드보이>부터, 직접 녹음에 참여했던 <태극기 휘날리며>까지 역대 흥행했던 영화 OST를 선보인다. 또한 음악과 뮤지컬의 경계를 허물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보헤미안 랍소디>, <레미제라블>의 감동도 재연한다. 레트로 특집으로 꾸민 영화 <미션>, <록키>의 OST까지,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곡들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로 들어볼 수 있다.

일시 12. 28.(수) 20: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마두동)
티켓 R석 40,000원, S석 30,000원

공연, 전시부터
문화예술교육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을
응원합니다.